

제목

중국 10월 제조업 PMI 하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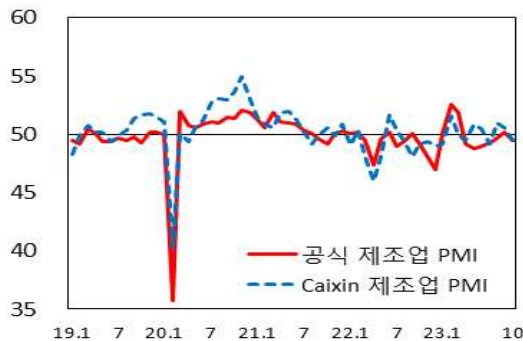
1. 10월 PMI의 주요 특징

- (제조업 PMI) 10월 제조업 PMI는 49.5로 9월(50.2)보다 하락하면서 8월(49.7) 이후 2개월만에 다시 기준치(50)를 하회*

* (23.6월) 49.0 → (7월) 49.3 → (8월) 49.7 → (9월) 50.2 → (10월) 49.5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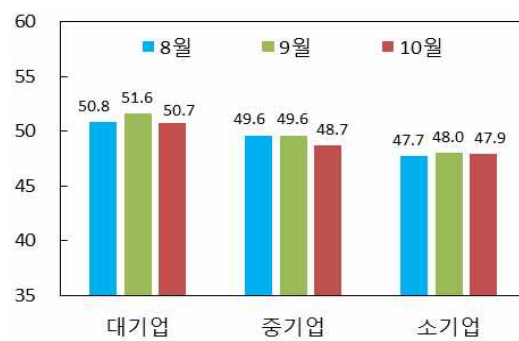
- 규모별로는 대기업(9월 51.6 → 10월 50.7)은 전월보다 하락하였으나 기준치는 상회한 반면, 중기업(49.6 → 48.7) 및 소기업(48.0 → 47.9)은 부진이 지속되면서 기준치를 계속 하회

제조업 PMI



자료: 국가통계국, WIND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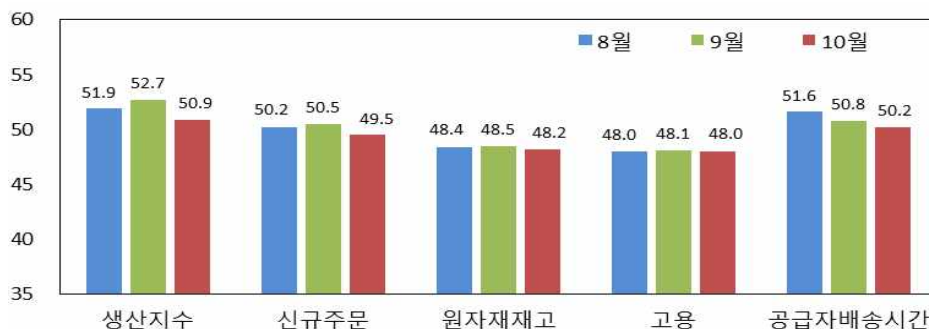
기업규모별 제조업 PMI



자료: 국가통계국, WIND

- 주요 항목이 모두 하락한 가운데 생산(52.7 → 50.9)과 공급자배송시간(50.8 → 50.2)이 기준치를 상회하였으나, 신규주문(50.5 → 49.5), 원자재재고(48.5 → 48.2), 고용(48.1 → 48.0)은 기준치를 하회

구성항목별 제조업 PMI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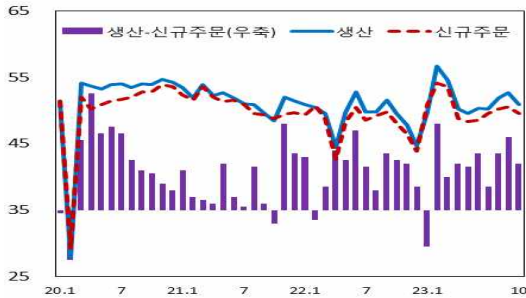


자료: 국가통계국, WIND

작성자 : 북경사무소 신동주 과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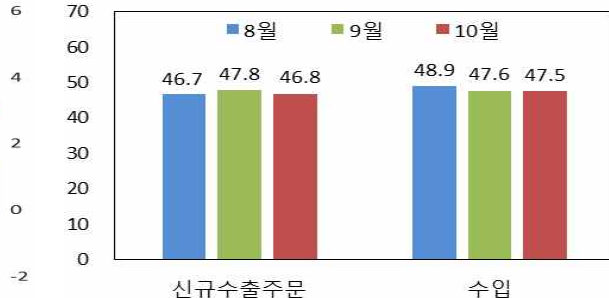
- 생산이 수요보다 더 큰 폭 하락하면서 **생산지수**와 **신규주문지수**간 차이는 축소(8월 1.7 → 9월 2.2 → 10월 1.4)
- **신규수출주문**(47.8 → 46.8) 및 **수입**(47.6 → 47.5)도 전월보다 하락

생산 및 신규주문 PMI



자료: 국가통계국, WIND

수출입 관련 PMI



자료: 국가통계국, WIND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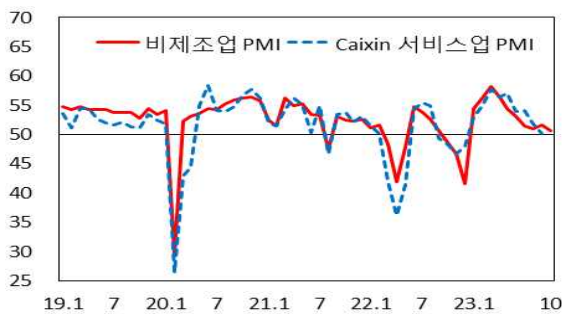
□ **(비제조업 PMI)** 10월 **비제조업 PMI**는 **50.6**으로 9월(51.7)보다 하락하였으나 1월(54.4) 이후 **10개월 연속 기준치(50)**를 **상회**

- **서비스업**(9월 50.9 → 10월 50.1)은 국경절 연휴 등으로 철도·항공운송, 숙박·요식업을 중심으로 호조를 보이면서 23.1월(54.0) 이후 기준치를 계속 상회
- **건설업**(56.2 → 53.5)은 인프라 건설을 위한 지방정부 전용채권 발행 등에 힘입어 기준치를 상회
- 그러나 서비스업의 경우 기준치에 거의 근접하였고 건설업은 전월대비 하락폭이 예년 수준을 상회*하는 등 **서비스업, 건설업 모두 부동산경기 부진****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모습**

* 과거 10월 건설업 PMI는 9월에 비해 평균적으로 0.5 상승(15~19년 평균)하였으나, 20년 이후부터는 하락(20년: -0.4, 21년: -0.6, 22년: -2.0, 23년: -2.7)

** 부동산경기지수(National Real Estate Prosperity Index, 국가통계국): (23.4월) 94.73 → (5월) 94.52 → (6월) 94.03 → (7월) 93.76 → (8월) 93.55 → (9월) **93.44**
 다른 건설 지표를 보더라도, 최근 부동산 준공면적(23.1~9월 전년동기대비 +19.8%)은 증가한 반면, 시공중인 면적(-7.1%) 및 신규 착공면적(-23.4%)은 크게 하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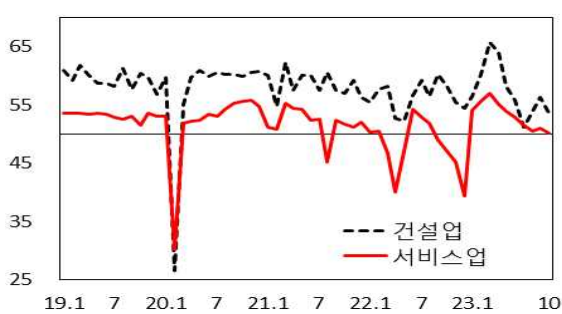
비제조업 PMI¹⁾



주: 1) Caixin 서비스업 PMI 미발표

자료: 국가통계국, WIND

건설업 및 서비스업 PMI



자료: 국가통계국, WIND

- **(종합 PMI)** 10월 **종합 PMI**(50.7)는 제조업과 비제조업이 동반 하락하며 9월(52.0)보다 **하락**

2. 시장평가 및 전망

- **중국경제**는 10월 제조업 및 비제조업 PMI가 모두 전월과 시장예상을 하회*하는 등 3/4분기 이후의 **경기개선세가 다소 약화**된 모습

* 제조업(9월 50.2 → 10월 49.5)<시장예상 50.2>, 비제조업(51.7 → 50.6)<시장예상 52.0>

- 국경절 연휴 이전 조기 출하, 연휴 기간중 공장 가동 중단 등을 감안*하더라도, 수요와 공급 모두 전월에 비해 하락폭이 컸다는 점**에서 **경기회복 기반이 아직 견고하지 못하다**는 평가(中金公司, 中信证券)

* 계절성을 감안하여 9~10월 제조업 PMI 평균(49.9)을 보더라도, 7월(49.3), 8월(49.7)에 이어 더딘 상승흐름

** 과거 10월 제조업 PMI는 9월에 비해 평균적으로 0.1 하락(10~19년 평균)하였으나, 코로나 19 이후 9월 대비 10월 하락폭이 확대(20년: -0.1, 21년: -0.4, 22년: -0.9, 23년: -0.7)

- 수요 측면을 보면, 월초 크게 늘었던 **소비재 수요**가 **둔화**된 데다 **부동산시장 부진**이 투자를 중심으로 **내수 회복**에 **부담**으로 작용하고 있으며,

대외 여건도 이스라엘-하마스 전쟁, 미중갈등,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**수출 개선세를 제약**(红塔证券, 浙商证券)

- 또한 기업의 수익성 악화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상황*에서 대내외 수요 부진의 영향으로 **기업의 생산 확대 유인**이 **다소 줄어들** 것으로 추정(冠通证券)

* 23.1~9월 공업기업 경상이익은 전년동기대비 9.0% 감소하였고, 같은 기간중 영업수익은 전년동기대비 3.8% 감소

- 10월 원자재 구입비용과 출하 가격이 모두 전월보다 하락*하였는데, 이는 원자재 가격이 조정**된 영향도 일부 있겠지만 **수요 부진**으로 기업들이 **재고***** (완성품)를 늘리고 **출하가격을 더 올리지 못한 것**으로 분석

* 가격 관련 PMI 지수		23.7월	8월	9월	10월
제조업	■ 원자재 구입비용 지수	52.4	56.5	59.4	52.6
	■ 출하 가격 지수	48.6	52.0	53.5	47.7
비제조업	■ 원자재 구입비용 지수	50.8	51.7	52.5	49.7
	■ 출하 가격 지수	49.7	50.0	50.3	48.6

** S&P GSCI(국제원자재 가격지수, 기말기준):

(23.6월) 540.46 → (7월) 593.4 → (8월) 591.42 → (9월) 609.67 → (10월) **577.89**

*** 완성품 재고 PMI 제조업 지수:

(23.6월) 46.1 → (7월) 46.3 → (8월) 47.2 → (9월) 46.7 → (10월) **48.5**

□ 시장에서는 1조 위안 규모의 **국채발행***에 따른 경기부양 효과를 기대하는 분위기이나, 정책효과의 시차를 감안할 때 올해 4/4분기보다는 **내년 1/4분기 이후에 그 효과가 집중될** 전망(JP Morgan, HSBC)

* 전인대 상무위(10.24일)는 국가 재정 적자 규모를 종전 GDP 대비 3%에서 3.8%로 확대하고 금년 4/4분기부터 1조 위안 규모의 국채를 추가 발행 계획을 발표

○ 또한 주요 전망기관들은 올해 5% 가량의 성장률 달성을 예상하면서도, LGFV 부실, 잠재성장률 저하 등 구조적·중장기적 이슈를 제기하며 **향후 중국경제의 회복 흐름이 매우 완만할** 것으로 전망(JP Morgan 등)

□ **중국정부**는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경기회복세 강화를 위해 **소비와 투자 등 내수확대**와 함께 **리스크 관리** 등에 정책역량을 집중할 전망

○ **상무부**(10.12일)는 4/4분기중 소비 확대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강조하였으며, **전인대 상무위**(10.24일)는 국채발행을 통해 인프라 건설 투자 확대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발표

○ 아울러 시 주석은 제6차 중앙금융공작회의(10.30~31일)에서 **지방정부 부채, 부동산 관련 리스크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**하는 한편 **외자유치**를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